

여수 “일상회복지원금 20일째 지급”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전 시민 1인당 20만 원...지역경제 활력 기대

권오봉 여수시장이 9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며 오는 20일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5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일상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오는 20일 전후로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과 함께 시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몇 차례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들께서 세 차례의 긴급이동명령, 대규모 선제적 검사와 백신 접종, 3차 긴급이동 명령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사를 표

했다.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 지난해 지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이제 와서 지급하는 것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확진자가 7,000명대에 달하고 지난달 18일부터 9시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극심해진 지금이 적기다”며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단체나 시의회에서 지급을 주장한 지난해 하반기 소비지표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2020년 대비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10% 내외로 증가했

고, 방문 관광객 수도 8월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해 평균 12.7% 증가하며 회복세에 있었다”며 “더구나 정부에서 9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경기활성화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시가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전 시민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8만2,000명, 약 569억 원 규모다. 시의회에서 추가 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히 준비해 오는 20일 전후에 지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4개 권역 관광 인프라 확충 일자리 지원·행복주택 건립”

2022 새해설계

김순호 구례군수



“4대 권역별 사업과 친환경 인프라 조성을 통해 극북·도약의 해 만들겠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4대 권역별 사업을 핵심군정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복합타운과 자연드림파크 3단지 유치 등 친환경 인프라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새해 계획을 밝혔다.

김 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주로 포용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7대 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1,100여 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지원한다. 대학생·신혼부부·다자녀 가정에는 주거비와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LH행복주택을 건립해 저렴한 공급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생태관광·친환경유기농업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4대 권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읍, 섬진강, 화엄사, 지리산은전 4대 권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구례읍 권역은 도시재생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통합어울림센터와 웰니스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전통시장은 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전통시장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판로 확보에 나선다.

섬진강 권역에는 4개 시군이 함께 섬진강 통합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해 광역권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수달생태공원과 생태화원을 개장하고 스카이라이프·스카이스피어 등 이색적인 레저시설을 도입한다.

화엄사 권역에는 1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100억 원 규모의 ‘화엄사 블루투어 프로젝트’와 반달가슴곰 생수처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리산은전 권역에는 지리산 정원 질라인과 모노레일을 개장하고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숲테마 정원을 조성하고 숙박시설도 단계별로 확충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스마트 로컬 거점 오피스 단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유기농업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자연드림파크에는 전남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완공하고 친환경유기농업 복합타운과 토마토 공방을 착공한다. 3단지를 유치해 치유·힐링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토지·지장물 보상 본격 추진

구례군이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본격 추진한다.

구례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해당 사업지구인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의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보상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미리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해 이후의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례군은 사업 설계단계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편입예정부지를 여러 차례 알려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상업무에 위해 지난해 7월 보상 수탁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맺었으며, 토지소유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군과 한국부동산원 두 곳에서 동시에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구례군은 이달 초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로 시작으로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도시사, 토지소유자 추천으로 선정된 3개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구례군관계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보상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순천청암고가 9급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순천청암고 제공

순천청암고, 작년 공무원 9명 합격 화제

순천청암고가 2021년도 공무원선발시험에서 9명이 합격해 2012년 이래 총 34명의 9급 공무원을 배출하며 공무원 배출의 요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순천청암고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과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총 9명의 학생이 최종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에서는 김은성, 김하늘, 남윤서 등 3명의 학생이 일반행정직렬에 최종 합격했고, 전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는 고은비, 안숙희, 안예린, 정지현, 허재연 등 5명의

학생이 합격했다. 전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도 장현진 학생이 보건직렬에 최종 합격했다.

순천청암고 공대문 교장은 “1학년 때부터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 희망을 조기에 파악해 학교의 교육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서 얻은 뜻 깊은 결실이다”며 “무엇보다 방학도 반납한 재학생들과 함께 고생해 준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에 감사드리고 내내까지 이어지는 고졸 국가직 지역인재와 지방직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에 대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청암고 이병호 취업부장은 “공무

원 합격이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학생들로 취업동아리를 꾸려 학교에서 필기시험 지도와 면접 스텐디 등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얻은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순천청암고는 공무원 합격 9명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공단 1명, 도로교통공단 1명, 한국투자저축은행 1명, 여군부사관 3명(7명은 최종 발표 대기 중), 세무회계 사무소 3명, 의료가관 20명 등 이미 60여 명의 학생이 취업을 확정되거나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의 취업 명문고로 자리잡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곡성기차마을, ‘눈 페스티벌’ 15일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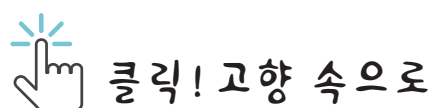
오는 15일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한겨울 눈 조각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가족과 함께 ‘눈 조각’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다. 1가족 당 100×60×120cm 크기의 눈 블록이 제공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상상하는 대로 마음껏 눈 조각 작품을 만들거나 만들거를 겨울철 먹거리존이 운영된다.

다.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간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에 제격이다.

참가를 위해서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초등학생을 동반한 3인 이상 가족이 대상이다. 참가비는 무료지만 조각에 필요한 망치, 톱, 끌, 삽, 조각도 등은 특별로 각자 준비해야 한다. 특히 총 50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 조각에 마감될 수 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곡성 김영성 씨, ‘대목장’ 보유자 인정

곡성군 목사동면의 김영성 씨(65)가 최근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61호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김 대목장은 1957년 곡성군 목사동면에서 태어났다. 만 스무살이 되던 1977년에 고택영 선생의 제자로 들어가 순천 송광사 집계루 보수공사에 참여하며 전통 건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김 대목장은 곡성 관음사, 완주

화암사, 전주 객사, 연기 보림사 등 많은 곳에서 전통 건축물 보수와 신축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 최원식-조원재-고택영으로 이어지는 한국 전통 건축의 맥을 계승하고 있다.

김영성 대목장은 “앞으로도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여수 소라면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여수시 소라면 주민자치센터가 최근 지역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활동할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지원, 문화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원 간 화합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근철 소라면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야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행복해질 것”이라며 “소라면 발전의 중심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광양소방, 화재 예방 안전캠페인·가두순찰

광양소방서가 최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캠페인 및 가두순찰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광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위험 3대용품 안전사용 매뉴얼 배부 ▲아파트 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사용법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최현경 광양소방서장은 “안전한 겨울철을 위해 공동주택 내 세대별 화기

취급에 신경 써야 하며,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설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소방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다음 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